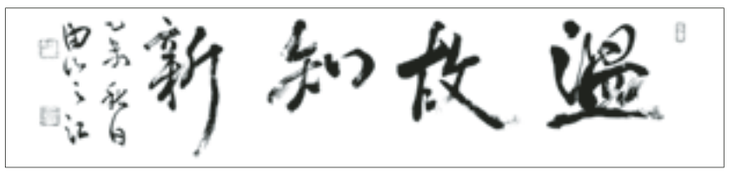
■ 고사성어 ㉓



온고지신(溫故知新)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 : 010-5483-7511
E-mail:ykkss77@naver.com
-약 력-
•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 250회
• 대한민국 미협국전 문인화부문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미협국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영남예술협회 이사장
•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는 뜻.

공자는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면 이로써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남의 스승이 된 사람은 고전(古典)에 대한 박식(博識)만으로는 안된다. 즉 고전을 연구하여 거기서 현대나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예기(禮記)》<학기편(學記篇)>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기문지학(記問之學:피상적인 학문)은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記問之學 不足以爲人師]."

지식을 암기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실로 '온고지신'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고전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고전의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고전 학습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와각지쟁(蝸角之爭)

달팽이 촉각 위에서의 싸움이란 뜻. 곧 ①대국(大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작은(쓸데없는) 다툼의 비유 ②하찮은 일로 승강이하는 짓의 비유 ③인간 세계의 비소(卑小 : 보잘 것 없이 작음)함의 비유.

전국시대, 양(梁:魏)나라 혜왕(惠王)은 중신들과 맹약을 깬 제(齊))나라 위왕(威王)에 대한 응징책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혜왕은 재상 혜자(惠子)가 데려온 대진인(戴晉人)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진인은 현인(賢人)으로 이름난 도가자류(道家者流:도교를 믿고 닦는 사람)답게 이렇게 물었다.

"전하, 달팽이라는 미물(微物)이 있사온데 그것을 아시나이까?"

"물론, 알고 있소."

"그 달팽이의 왼쪽 촉각 위에는 촉씨(觸氏)라는 자가, 오른쪽 촉각 위에는 만씨(蠻氏)라는 자가 각각 나라를 세우고 있었나이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 영토를 다투어 전쟁을 시작했는데 죽은 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도망가는 적을 추격한 지 15일 만에 전쟁을 멈추었다 하옵니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어디 있소?"

"하오면, 이 이야기를 사실에 비유해 보겠나이다. 전하, 이 우주의 사방상하(四方上下)에 제한(制限)이 있다고 생각하시옵니까?"

"아니, 끝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소."

"하오면, 마음을 그 무궁한 세계에 노닐게 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왕래하는 지상의 나라 따위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으음, 과연."

"그 나라들 가운데 위라는 나라가 있고, 위나라 안에 대량[大梁:개봉(開封)]이라는 도읍이 있사오며, 그 도읍의 궁궐 안에 전하가 계시옵니다. 이렇듯 우주의 무궁에 비한다면, 지금 제나라와 전쟁을 시작하시려는 전하와 달팽이 촉각(觸角) 위의 촉씨·만씨가 싸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사옵니까?"

"과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소."

대진인이 물러가자 제나라와 싸울 마음이 싹 가신 혜왕은 혜자에게 힘없이 말했다.

"그 사람은 성인(聖人)도 미치지 못할 대단한 인물이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⑳

밤나무

▣ 靑南 權寧漢(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대부분의 꽃이 시든 초여름, 오직 밤꽃만은 만발합니다.

녹색의 짙은 푸르름 속에 담황색의 밤꽃은 금방 눈에 잘 띄입니다.

옛날부터 즐겨 먹던 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찰밥에 놓인 밤을 골라 먹거나, 길가에서 파는 군밤을 사서 맛있게 먹은 일은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좋은 나라여서 여러가지로 좋고 아름다운 풍습이 많이 있는데, 그 명절마다 먹는 특유한 음식이 꼭 짝지어져 있습니다.

설에는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 떡국을 먹고, 정월 대보름에는 '부럼깬다' 혹은 '부스럼깬다'고 하여 입으로 깨물면 소리가 딱하고 나는 햇과, 즉 밤, 호두, 잣, 땅콩 등을 먹고, 단오에는 궁궁이를 머리에 꽂고(청궁), 여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파란 미나리 나물과 쑥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복날이 되면 부자 양반들은 삼계탕을 먹고, 일반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고, 보신탕도 못먹는 사람들은 수박을 먹습니다.

이 보신탕 먹는 문제로 한때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88올림픽 때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 한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심통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신탕 애호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남의 나라 민속음식을 가지고'하며 반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애주의를 찾는 서양 사람들이 쇠고기는 왜 먹고 양고기, 말고기는 왜 먹나 하고 반박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보신탕용 개는, 늘 애완용으로 함께 사는 정든 개가 아니고, 식용으로 기르는 별도의 개라는 것을 인식시켜 겨우 오해를 푼 것으로 압니다.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고….

이렇게 계절마다 명절마다 먹는 특정한 음식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구수한 내력과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밤나무 이야기에는 너무 빗나가는 듯해 그 말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밤나무꽃은 암수 한 그루에 있으며 매년 6월에 피는데, 수꽃은 쥐꼬리처럼 길게 늘어지고 암꽃은 그 밑에 2~3송이 달려 있습니다.

밤나무꽃에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바로 남자들의 정액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괴테나 히이네의 서정시를 보면 밤나무 숲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밤나무를 남성의 사랑에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밤나무꽃이 만발한 밤나무 숲으로 애인을 데리고 산책하면, 평소에 완강하던 여자도 웬지 마음이 약해져서 남자의 사랑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밤나무꽃 향기에 취해서 정이 부풀어 오른 여자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나무과 식물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 온대 지역에 약 13종이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과일로 이용되는 것은 일본 밤, 중국 밤, 유럽 밤, 미국 밤 등 네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있던 토종밤은 뚜렷한 학술적 품종명이 없었고 생산되는 지방에 따라 양주 밤, 평양 밤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1960년경부터 번지기 시작한 밤나무 흑벌이 들어오면서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밤은 알은 조금 작으나 향기가 있고 감미로우며 아주 연하여 지금도 그 맛이 그립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시장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밤은 개량종 또는 새로 수입한 품종으로 알은 크나 옛날 우리나라 토종밤보다 맛이 훨씬 못합니다.

추석이나 시사 때, 시골에 있는 산소에 성묘하러 가서 묘 가까이에 있는 밤나무를 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나무 밑둥치를 발로 툭 차고, 후둑후둑 떨어지는 알밤을 주으면서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따가운 밤송이 속에 탐스럽게 들어 있는 알밤을 꺼내느라 발로 밟아 비비고 막대로 벌려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옛어른들께서 밤은 기침에 좋고, 특히 밤의 떫은 속껍질을 다려서 그 물을 먹으면 가래가 삭고 기침이 멈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과자가 없던 옛날, 우리 자식들이 어렸던 시절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으레 밤을 구워서 온 식구끼리 먹으며 겨울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를 부르게 하고, 양철을 가위로 둥글게 오린 다음 못으로 여러 구멍을 뚫어서 숯불에 올려 놓고, 늘 내가 군밤 장사가 되었습니다.

군밤을 구울 때 먹음직스럽게 밤이 툭 껍질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려면 밤 밑 부분을 예리한 칼로 한일(一)자 금을 속살까지 도달하도록 그은 다음 물에 하룻밤을 불려 두었다가 구으면 잘 구워지는 것도 그때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양봉업자들은 아카시아꿀을 다 뜨고 다른 꽃이 별로 없는 초여름에는 밤꿀을 뜨려고 밤꽃을 따러 갑니다.

밤꿀은 아카시아꿀보다 맑고 투명하지 않으며 약간 갈색이 나는 꿀입나다만, 몸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기침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노계 권삼달

(영덕, 74세, 35世, 부정공파)
▲ 대한민국 영일만 서예대전 제13회, 14회, 15회 각 입선

爲國誠實盡命忠 나라를 위함은 성실하고
위국성실진명충 목숨을 다함이 충성이요
事親恭敬竭力孝 어버이 섬김은 공경하고
사친공경갈력효 힘을 다함이 효도이다

乙未年酷暑 魯溪 權三達 書

인터뷰 - 권갑하박사(시인, 농민신문사 논설실장)

예천권씨와 안동권씨 부부의 특별한 인연

1. 요즈음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제 나이가 한창 바쁠 때입니다. 현재 논설실장으로 재직 중인 농민신문사 직장도 이제 막바지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시인으로 활동하는 문단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분주합니다. 거기에다 올해 8월 '아리랑의 글로컬문화콘텐츠화 전략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리랑세계화포럼' 간사까지 맡고 있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예천권씨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참에 소개 좀 해주시고, 또한 부인께서 안동권씨인데 특별한 인연 소개도 함께해 주시면 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대부분이 권씨는 단일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족보사적으로 안동권씨의 역사적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그렇게 인식된 것입니다. 현재 권씨의 본관은 '안동'과 '예천' 두 곳이지요. 예천권씨는 원래 예천지방 3대 토성 중 하나인 '흔(昕)'씨였는데, 고려 충목왕의 이름자(휘)가 흔(昕)이어서 이를 피해 외가(안동권씨)의 성씨를 따라 권(權)으로 바꾸라는 어명에 따라 개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을 바꿀 당시 우리 집안 종손의 어머니가 안동권씨(시조 권행의 8세손 권백서의 따님)에서 오셨고, 증조할머니도 안동권씨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가의 성으로 개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집안에서는 안동권씨와 혼인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저의 아내도 안동권씨 복야공파 36대손입니다. 그런데 다들 권씨는 단일본으로 알고 있다 보니 동성동본끼리 결혼했냐고 저희 부부에게 호기심을 갖곤 합니다.

3. 시조 시인으로 시가 국정교과서에 실리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라도 있었는지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보물 제878호)을 저술한 초간 권문해(1534~1591) 공이 저의 12대 선조이십니다. 보물 제879호인 '초간일기'를 남기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조는 우리말 우리글에 바탕을 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시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인들은 시라고 하면 서구에서 100여 년 전 들어온 자유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육과 부끄러운 사대주의 의식 때문이죠. 조선시대 때도 중국의 한시만을 시라고 여겼었는데, 부끄러운 이러한 우리의 사대의식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이 땅의 시인이 민족시인 시조를 쓸 줄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은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시가 아닌 시조를 쓰는 시인이라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낸 시양식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시집도 많이 내시고 논설위원으로 글과는 무척 친하신데 독자분들께 한말씀 부탁합니다.

글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신문사에서 오랜 시간을 주로 글 쓰고 신문과 월간 잡지 만들고 책을 디자인 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집과 저서도 여러 권 냈지요. 그 중에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 인기를 얻은 시집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의 글을 애정을 갖고 읽어주시는 독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5. 우리 종친분들께도 한말씀하시죠

처가가 안동권이니 저도 안동권씨 일원입니다. 우리 예천권씨는 조선 중기 무오사화 때 수헌 권오복(1467~1498) 공이 연류 되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당시 적지 않은 우리 종친들이 본관을 안동으로 바꾸어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 안동권씨 분들과는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지요. 아무튼 안동권씨 종친분들의 가내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 끝으로 평소의 건강관리와 좌우명은?

저는 게을러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문경새재 부근에 집필실을 마련하면서 주말이면 서울에서 문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내려가면 글 쓰는 일보다 농사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사실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좌우명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제가 평소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글귀는 '사랑과 겸손'입니다.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들께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반갑게 생각하며 지면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박사의 시 1편을 소개한다.

〈일 획〉

누군들 꼿꼿하게 서고 싶지 않으리
파도로 서기 위해 침묵하는 먼 수평선
강둑의 미루나무는 밤에도 눕지 않는다
한 줄 고삐에 꿰어 끌려 온 황소처럼
한순간 발목이 걸려 문득 쓰러지는 생
오롯한 한줄기 빛에 어둠은 길을 잃는다
비의 수직 임종에 먼 바다는 달려오고
서릿발처럼 돋은 서늘한 한 줄의 문장
날개를 접은 목숨은 일획으로 눕는다

〈대담자 : 안동권씨대종원사무부총장 권오운〉

가수 권보아 15주년 기념콘서트

가수 권보아(29)가 여자 솔로 아이돌 가수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00년 8월25일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권보아는 지난 25일로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권보아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15주년 기념콘서트 "2015 보아 스페셜 라이브 나우니스"를 열고 팬들을 만났다.

권보아의 콘서트는 아이돌 출신 20대 여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최초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세종문화회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만이 오르는 꿈의 무대.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아이돌 가수는 1990년대 H.O.T와 젝스키스가 있다. 이외에 이미자, 신승훈, 이선희, 전영록 등 관록있는 가수들이 이 무대에 섰다.

권보아가 이처럼 큰 무대에 선 것은 그가 보여준 음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보아는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다양한 곡을 발표해 사랑받았다.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아시아 대표 뮤지션답게 한국, 일본, 미국을 총망라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권보아는 2000년 8월 '아이디 피스비'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앨범은 당시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고 '아시아의 별' 보아의 활약을 예고했다.

권보아는 2002년 3월 일본에서 정규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를 발표해 현지 최고 권위의 음반판매 조사 차트인 오리콘 위클리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넘버원'을 발표했다.

타이틀 곡 '넘버원'은 당시 크게 히트하며 보아에게 여러 가지 상을 안겼다. 권보아 역시 '넘버원' 활동시기를 15년 가수 활동 최고의 순간으로 꼽기도 했다. 보아는 같은 해 미니앨범 '미라클'을 발매, '발렌티'를 또 한 번 히트 시키며 입지를 굳건히 했다. 또 이듬해 3집 '아틀란티프린세스'를 발매, 타이틀 곡 '아틀란티스 소녀'로 다시 한 번 가요계를 강타했다. 보아는 '러브 앤 어니스터', '마이 네임' '걸스 온 탑' '허리케인 비너스' '온리 원' 등 히트곡을 내며 꾸준히 활동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활동하며 세계로 뻗어나갔다.

일본에서는 현지 최고 인기가수들만 할 수 있는 회당 1만 관객 규모의 아레나 투어도 여러 차례 돌며 10대 아이돌 가수 보아를 넘어 뮤지션으로 성장한 보아의 면모를 보여줬다. 카리스마와 섹시함, 여성미, 강인함 등 다양한 매력을 어필하며 15년간 최고의 여자 솔로가수로 군림해 왔다. 15년간 보아는 대중에게 완성도 높은 음악을 들려주며 사랑 받았다.

보아는 앞으로 가수로서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친구처럼 즐거움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15년차 뮤지션 보아가 들려줄 음악이 어떤 즐거움을 줄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2015. 8.29 김미화기자 인용〉